

기본급 184,900원 인상!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회사의 노동안전보건 의무 확립! 성폭력 예방 및 금지!



지부교섭 속보

9호

2023.07.21(금)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박종우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12차 지부교섭_ 3차 제시안 제출]

아직도 한참 멀었다!

4주만에 교섭 재개

6월 22일(목) 결렬됐던 지부교섭이 4주만에 재개됐다. 7월 20일(목) 한국JCC에서 12차 지부교섭이 열렸다. 사측은 3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3차 제시안>

1. 금속산업 최저임금 적용 : 추후 제시

2. 노동개악 저지

: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 등의 변경시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하고, 특정부문 근로자들의 의견과 조합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부문 대표 및 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실시한다.

3. 2023년 임금인상

- 한온시스템 : 기본급 72,000원
- 코스모링크 : 추후 제시
- 한국JCC : 기본급 31,000원
- 유수종합물류 : 기본급 36,000원
- 로버트보쉬코리아 : 추후 제시
- 대한이연 : 기본급 35,000원
- 리텍 : 기본급 55,000원
- 한국KDK : 추후 제시
- 코스모촉매 : 기본급 25,000원

4. 기후위기 대응

① 회사는 매년 조합에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 1회(1시간) 기후위기 관련 유급교육을 실시한다.

③ 회사와 조합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사간 협의체를 구성하며 협의체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노사협의로 정한다.

④ 회사와 조합은 매년 기후위기로 인해 또는 탄소중립적 사업환경 구축 과정에서 고용, 노동시간 그밖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받는 조합원을 파악해 불이익이 없도록 노동조건을 조정한다.

5. 노동안전보건 의무 (1차안과 동일)

6. 성폭력 예방 및 금지 (2차안과 동일)

더 속도내야 한다

금속산업 최저임금 적용은 아직도 제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제시안도 아직 합의하기 너무 부족하다. 법정최저임금(시급9,860원)도 결정됐고 휴가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교섭도 속도를 내야할 시기가. 차기교섭은 정말 끝장볼 수 있는 교섭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차기교섭 : 7/27(목) 14:30 대한이연

12차 교섭 속기록

빨리 끝낼 의지 있나?

노 : 6월 22일 교섭결렬 후 4주가 지났다. 그동안 금속노조는 총파업 결의대회 진행했다. 그날 한국타이어에서는 협착사고가 일어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논란이다. 또 최근에 오송 지하차도 물이 넘쳐서 14명이 돌아가셨다.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막지 못했다. 지부교섭에 나오는 사용자측에서는 안전대책 강구해서 이런 사고 안일어났으면 좋겠다. 중앙교섭에서 금속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합의가 쉽지 않고 휴가 넘길 수도 있다. 지난 교섭에서 임금까지 전체 제시하라고 했다. 오늘 성실한 안 기대하겠다.

사 : 다음주에도 비가 오는데 더 이상 피해 없길 바란다. 최저임금위원회 등 진척사항으로 봐서 속도내야 하는 타이밍이긴 하다. 교섭 전에 논의해봤는데 입장 차이가 크다. 임금 관련해서도 체계도 다르고 교섭 속도도 천차만별이다. 가능한 수준에서 의견을 모아왔다.

〈3차 제시안 제출〉

노 : 내용이 정회해서 논의할만하지 않다. 기후 위기 대응도 처음 제출했는데, 핵심 요구내용을 그냥 삭제하고 제출하면 곤란하다. 예년보다 지부교섭 차수가 훨씬 많이 진행 중인데 속도가 느리다. 사전에 실무간에 얘기 나온게 임금 인상안을 왜 지부교섭에 내야 하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알고 있다. 지부교섭 의미는 우리 조합원 해당하는 내용도 있지만 미조직 노동자

들에게 해당하는 요구도 많다. 금속노조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도 있다. 지부교섭은 임금, 노동조건 상향평준화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상황에 따라 지회별 논의를 하도록 열어주기도 했다. 근데 반대로 왜 계속 지회로 열어주지 않냐고 하면 곤란하다. 크게 오해하는 것이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내려주는 것이다. 전체 사업장이 임금인상안을 제출하면 정회하고 사업장별로 논의할 시간을 드리든가 다른 논의할 방법을 마련할 것이다. 임금안도 지부교섭에서 제출하셔야 한다. 지부요구안에 대해서도 각 항목별로 한번 제시했다. 완성도가 떨어진다. 추가 제시를 해주셔야 한다. 차기 교섭에 추가 제시안 제출해주셔야.

사 : 임금 부분이 각 사별로 내리는 건 아니고 지부교섭 중에 중간 중간 정회를 통해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건가?

노 : 원칙적으로 그렇고 상황에 따라 논의할 수 있는데 이대로는 논의하기 어렵다.

사 : 진척이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노 : 보통 8~10차 정도 되면 축소교섭하고 속도를 냈다. 그런데 지금 12차 교섭인데도 그 정도 진도를 못나가고 있다. 사용자도 빨리 끝내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이 상황을 보면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다음주 13차인데, 제시안 확 내고 빨리 정리하자.